

수수료 면제·쿠폰 제공...불장에 증권가 고객유치전

신규 계좌 개설·휴면고객 대상 이벤트 다채

RIA 세제 혜택도 한몫...신용 이자율 인하도

국내 증시 상황에 증권사들이 국내주식 투자 우대 등 혜택을 앞다퉈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한 모든 고객들에게 온라인 매매수수료 우대이벤트를 시작했다. 수수료 우대는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국내주식과 관련된 ETF, ETN, 리츠까지 모두 적용된다.

거기에 ISA계좌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고 ETF 거래횟수와 순매수 금액 충족 시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도 지급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신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나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벤트 신청 고객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국내주식 거래 시 6개월간 거래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 우대를

추가로 6개월 받을 수 있어 총 1년 동안 혜택이 주어진다.

대신증권도 신규고객이나 12개월 이상 국내주식 미거래 고객에게 첫 1달 동안 수수료 면제와 1개월 이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우리투자증권은 모든 고객들에게 2027년 말까지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나증권도 신규 고객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 국내주식 매수쿠폰 2만원, 국내 주식을 1주 이상 매수하면 1만원을 지급해 총 3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등이 연 3.9%의 이자율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거래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가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상위권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복귀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한몫

하고 있다. RIA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ETF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실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해외 주식 투자나 거래를 중단했던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를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약 650조8219억원으로, 지난해 말인 674조84억원보다 약 23조원 급감했다. 요구불예금 감소가 모두 증권 투자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맞물려 투자 대기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업종에서 증권 투자를 위해 이전해 오는 고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코스피는 장중 5000선을 넘어서고, 30일에는 5300선까지 돌파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도 지난달 26일 1000선을 돌파한 지 2거래일 만에 1100선을 넘었다. 이에 국내 증시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세계 주요국 증시 1, 2위를 다툰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홍 기자 djawody0316@

증권사 고객 유치 이벤트

국내주식형 ETF 모으기, 순매수 이벤트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KDB자산운용 연계 이벤트

2026.01.26 ~ 03.31

국내주식 수수료 완전 0%

자세히 알아보기 >

신용거래 이자율 완전 0%

자세히 알아보기 >

비대면 신규계좌 개설 이벤트

2026. 01. 15 ~ 2026. 03. 31

혜택 안내

8만원 이상 거래 시 5만원

15만원 이상 거래 시 10만원

KOSPI

5,225.24

▲ 3.99 (0.08%)

Hana Bank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뒤 장 초반 5220대로 올라서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30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상호금융은 전국 농축협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기 사업추진과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2026 사업추진방향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농협상호금융, 조기사업추진·목표달성 결의

전국 농축협 경영진 대상...호남·중부·영남권 등 사업방향교육

농협상호금융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 까지 전국 농축협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기 사업추진과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이번 교육은 지난달 26일 중부권 농축

협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으로, 28일 호남권 200여명, 29일 영남권 300여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농축협 임직원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경진 상호금융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상호금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이라며 “전 임직원이 동심협력의 자세로 전사적 사업추진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원화 과도한 평가절하...국민연금 환헤지 늘려야”

한은 총재, 해외투자 축소로 200억달러 수요 감소 전망

“수도권 부동산대출 제한 한계...공공임대 확대 등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지난 연말연시 원·달러 환율이 1480원 가까이 오른 것과 관련, “역사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안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담 중에 “원화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가절하되기 시작한 이유를 되돌아보면 정말 의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이 대담을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 총재는 당시 환율 급등 배경에 대해

“일종의 ‘퐁유 속의 빈곤’”이라며 “수출 호조 등으로 달러가 풍부했지만, 사람들이 달러를 현물 시장에 팔기를 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인과 국민연금,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들은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것으로 봤다”며 “이런 기대 심리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특히 “국민연금 해외 투자 규모가 우리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상당히 컸다”며 “이는 원화가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창출하고, 그 기대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해외 투자를 선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민연금이 올해 해외



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최소한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목표는 0%”라며 “경제학자로서 사견으로 말하면 안 된다. 헤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헤지 수단이나 달러 자금 조달원도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허용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아마 3~6개월 내 한국 외환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조선업 수출”이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관련 수출이 상당히 강세”라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 “환율이 1470~1480원 선에서 장기간 머무르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 높여야 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올해 물가를 2% 안팎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른바 ‘K자형 회복’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이 중앙은행에도 책임을 묻는다”며 “그러나 금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와 관련, “우리는 정부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계속 낮추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대출 제한 중심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다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5220대 강보합 마감...‘90만닉스’ 달성

코스닥은 1.29%↓...기관 6거래일동안 11조원 매수

코스피가 지난달 30일 하락 출발에서 5300선까지 넘나들다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0.90p(0.21%) 내린 5210.35로 시작해 3.11p(0.06%) 오른 5224.36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5321.68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처음으로 5300선을 넘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5200선까지 내주며 5199.78까지 떨어지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전날과 비슷한 5220선에서 거래가 마무리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2조2976억원을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9755억원과 425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이 각각 1496억원과 924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2079억원 매수 우위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8.13% 급등해 93만1000원까지 오르다가 사상 처음 ‘90만닉스’를 달성하고 5.57% 오른 90만9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1.82p(0.16%) 오른 1166.23으로 개장했지만 14.97p(1.29%) 내린 1149.44로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조3346억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10조9000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임재홍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 제조업 웃었지만...소비·건설은 ‘찬바람’

전기장비·자동차 호조에 4.2% ↑...전남은 건설만 반등

광주지역 광공업 산업지표가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한 반면, 소비·건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일 국가데이터터 호남지방데이터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했다.

전기장비(36.1%), 자동차(14.3%), 전자·통신(50.6%) 등은 증가했지만, 고무·플라스틱(-35.0%), 금속가공(-34.6%), 기계장비(-10.7%) 등에서 감소했다.

출하도 1년 전 보다 3.1% 늘었는데, 전기장비(55.2%), 전자·통신(45.8%), 의료정밀광학(39.3%)의 영향이 컸다.

제고는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하고 전기장비(101.9%)가 늘며 큰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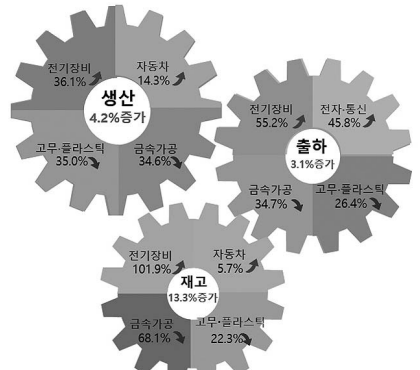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2.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백화점 판매는 3.0%, 대형마트 판매는 9.3% 각 줄었다.

건설수주액은 110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8%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등의 감

광주시 산업활동동향



소로 전년 동월 대비 66.8%. 민간부문은 부동산과 건설업 위주로 72.0% 감소했다.

전남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7% 줄었다. 석유제품(14.8%), 석유정제(3.7%), 전기·가스업(2.6%) 등이 늘었지만, 화학제품(-9.0%), 1차금속(-6.4%), 전기장비(-38.5%) 등이 감소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건설수주액은 1조4405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0.0% 늘었다.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단체 증가로 9.9%, 민간부문은 부동산, 기타비제조업 등의 호조로 195.9%가 급증했다. 임재홍 기자